



## 환경부, 악취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지난 6월 22일 악취방지법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취를 유발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석유정제품제조시설,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축산시설, 도축·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등 48개 시설로 지정했다.

그리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엄격한 악취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국가산업단지 등 시·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해당된다.

## “축산식품 관리 업무 농림부에서 관장 마땅”

- 축단협, 비상대책 소위원회 구성 본격 활동
  - 대한수의사회, 성명서 통해 농림부 관장 주장
- 최근 축산식품 유통 및 가공업무가 복지부

산하 식약청으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본회를 비롯한 축단협 뿐만아니라 대한수의사회 등 관련단체도 이에 부당함을 알리는 등 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우선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6월 22일 본회 최영열 회장 등 축산관련단체장 8명으로 비상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 소비자 포럼 관련 소비자단체를 방문해 축산식품 관리업무의 식약청 이관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축산식품 관리 업무는 농림부에서 관장해야 하는 당위성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키 위해 소위원회 산하 전담 실무기획팀을 구성하고 7월 6일 양계협회 사무실에서 축산물 가공업무 이관 관련 회의를 갖고 축산식품 식약청 이전의 부당함을 대내외에 알리는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축단협은 7월 23일 한국소비안전협회 주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축산식품 관리를 농림부가 관장해야만 하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지

난 6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축산식품의 위생관리업무는 농림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림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돼지고기 포함 복지부와 협의중

#### - 본회 건의에 대한 회신서 밝혀

농림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에 돼지고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가 지난 6월 23일 농림부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시 돼지고기도 표시대상에 포함되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 농림부는 최근 회신을 통해 이같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에 돼지고기가 포함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왔다.

이와 관련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입량이 많은 쇠고기에 대해 우선 실시 후 시행효과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나, 농림부는 돼지고기 등도 쇠고기와 함께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동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돼지고기도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산 돼지고기 등급세분화로 육질 등급 표시 가능

#### - 농림부, '식육의 부위별·등급별·종류별 구분방법' 고시 개정해 12월초부터 시행계획

오는 12월 1일부터 쇠고기의 최고등급이 종전 A1+에서 1++A로 바뀌고 소비자들도 드

물게나마 돼지고기의 육질등급을 볼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국산 육류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종류별 구분방법' 고시를 개정, 오는 12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7월 19일 밝혔다.

쇠고기의 경우 현재 육량 등급에 따른 A, B, C, D 4개 등급과 육질에 따른 1+, 1, 2, 3 등 4개 등급을 조합해 표시하고 있으나 육질 등급은 세분화해 1++가 추가되고 표시순서도 육량, 육질 순서에서 육질, 육량 순서로 바뀌게 된다. 쇠고기 등급표시는 등심과 채끝은 의무사항이고 다른 부위는 판매업소 선택사항이어서 자율적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표시하는 것이 정착화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돼지고기는 종전 육량위주 등급인 A, B, C, D, E와 함께 육질에 따른 1+, 1, 2, 3 등급이 도축단계에서 시범 운영중이며, 12월부터는 판매업소에서 종전 육량등급과 함께 육질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돼지고기는 도축단계의 육질등급 부여도 희망하는 경우만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판매단계에서는 자율 표시사항이어서 소비자들이 육질등급을 볼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국산 육류의 질이 높아져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개정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 돼지 사육두수 '정체'

- 6월 돼지 사육두수 9백1만7천두, 전분기비 0.1% 증가

2004년 6월 1일 현재 돼지 사육두수가 9백1만7천두로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3년 3월 이후 계속 900만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의 2004년 6월 가축통계조사 결과 6월 1일 현재 전국의 돼지 사육두수는 9백1만7천두로 전분기 9백만6천두에 비해 1만1천두(0.1%)가 증가했으며, 2003년 6월의 돼지 사육두수인 9백5만1천두와 비교해 3만4천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 사육가구수는 1만3천580호로 전분기보다 2.6% 감소, 전년 동기보다는 11.8%나 감소해, 양돈을 포기하는 가구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양돈농가 돼지 사육의향 여전히 높아

- 농협, '가축사육의향' 설문 실시

축산물 경기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한우·젓소·돼지·닭 등의 사육농가 대부분이 지금의 사육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리겠다고 응답하는 등 사육 열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전국 돼지 194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축사육의향' 우편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중 93%가 '지금의 사육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리겠다'고 응답했으며, '사육 규모를 줄이겠다'는 응답자는 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실시한 농협 관계자는 "조사 결과 돼지의 경우 전업 농가를 중심으로 사육 의향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에 김광원 한나라당 의원



제17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이 선출됐으며 총 22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김광원 의원 이번엔 구성된 제17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는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 김우남 의원, 박홍수 의원, 신중식 의원, 안병엽 의원, 오시덕 의원, 이영호 의원, 이철우 의원, 이시종 의원, 한광원 의원으로 구성,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 김명주 의원, 김영덕 의원, 김재원 의원, 김형오 의원, 박승환 의원, 이상배 의원, 홍문표 의원이, 비교섭단체에 강기갑 의원, 김낙성 의원, 이정일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출하시점에 가서 과잉생산으로 인한 값 하락 등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무리한 입식보다는 앞으로의 시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육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농림부, 구제역 긴급 경영자금 상환기간 연장

농림부는 지난 2002년도에 구제역 및 돈열의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농가들에 대해 동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원했던 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3백5억2천9백만원에 대해 올해 5월에 상환기일이 도래했으나, 상환예정일인 5월부터 향후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연체된 자금은 소급 적용시키기로 했으나 이지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는 지난 4월 말경 정부에 구제역 발생 지역 양돈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십분 감안해 5월중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영안정자금의 상환기한을 2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돈열 전파 원인 제대로 밝혀야”**

농림부는 지난 6월 2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김포시청에 의해 고발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상원축산과 관련,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재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농림부는 이 의견서를 통해 불기소처분 당시 상원축산에서 2003년 2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돼지의 폐사가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고, 위탁농장에서도 질병 증상과 폐사 사실 또한 신고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한편 상원축산이 돼지가 폐사할 때마다 육안으로 돈열 등 전염병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농림부는 육안으로 돈열 등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당시 전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방역기관에 신고해 정확히 진단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행성 설사병 지속적인 관심 기울여야**

- 분만 4~5주전 1차 접종, 2~3주 후 추가 접종해야

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5월 가축전염병발생 월보에 의하면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은 전국 2개 농장 160두의 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5개 농장 1,320두의 돼지

**신임 농촌진흥청장에 손정수씨 임명**



신임 농촌진흥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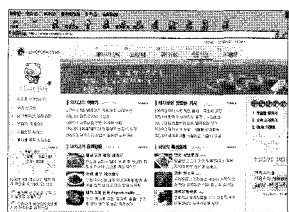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6개부처 차관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고 농촌진흥청장에 손정수 전 농촌진흥청 차장을 임명하였다. 신임 손정수 농촌진흥청장은 '53년 9월 20일생 전남 목포 출신으로 목포고, 중앙대 법대를 졸업하고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 농촌개발국장, 농촌진흥청 차장, 기획관리실장,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손 청장은 '75년 행정고시 17회에 합격하여 행정사무관(5급)으로 공직을 시작하여 28년 동안의 공직생활 중 군 복무기간과 국내외 파견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농림부에 근무한 농업전문가로 한·미 농산물협상, 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UR협상 업무 등 통상 현안 타개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촌 의료, 교육, 복리증진 등 농업·농촌 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어려운 농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서 발생한 것과 비교해 PED 발생이 87.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1월부터 5월까지의 누계는 41농가 8천915두로 전년 동기 누계 62농가 2만3천914두에 비하면 올해에는 지속적으로 유행성 설사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농가에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히는 질병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행성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접종은 분만 4~5주전 1차 예방접종하고 2~3주

## 양돈수급위, 돼지사랑 홈페이지 개설



농협중앙회 양돈수급안정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소비홍보 사업의 강화 및 돼지고기 주 소비층인 주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비홍보하고, 돼지고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홍보사이트(www.ilovepork.or.kr)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돼지고기 일반상식 및 구매정보 △돼지고기 요리 및 맛집 정보 △이벤트 및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양돈수급안정위원회는 돼지고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돼지고기의 소비확대와 부위별 소비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많은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 다시 접종해야 하며, 이와 아울러 농장 소독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한편 오제스키는 전북 1농가, 경남 8농가 등 모두 9농가에서 165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가공사업장 위생검사에도 2천2백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축산물 군납가격 평균 11.5% 인상

축산물 군납단가 계약이 전년대비 평균 11.5% 인상된 가격으로 체결됐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 22일 국방부 조달본부와 총액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11.5%로 인상된 가격으로 축산물 군납단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인상폭은 총액기준으로 평균 1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농협중앙회와 군납조합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돼지갈비 군 급식방침이 1인(월)기준 3백g씩 급식토록 하되 계획생산 1백50g, 시중구매 1백50g씩 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3/4분기부터 중앙회 차원에서 돼지갈비를 확보해 조합을 통해 납품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군납사업 유통지원을 위해 1억3천5백만원을 조합별 납품운송거리 및

### 동일농축, 6월 24일부터 돼지 지육 경매 시작

동일농축(구 서울 태강공판장, 서울 독산동 소재)이 6월 24일부터 돼지 지육에 대한 경매를 시작으로 공판장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동일농축이 경매를 재개함에 따라 본회는 전국 13개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를 적용해 발표하던 것을 6월 24일부터 동일농축을 포함한 14개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를 적용해 발표하고 있다.

###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 지속 가능

- 농림부, 불량만두 파동 관련 일본정부 설득 성공

농림부는 불량만두 파문으로 자칫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원만한 해결로 인

## 농림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농림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의해 공무원의 월 2회 토요휴무가 실시되고, 내년 7월부터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행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휴무토요일에도 '토요민원상황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토요민원상황실 운영기간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며, 월 2회 2번째 4번째 토요일 휴무일에 운영된다.

### ■ '토요민원상황실' 전화번호

- 농림부 본부 : 과천종합청사 3동 3층 306호, (02)503-7200, 2110-400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안양시 안양6동 433-2, (031)446-0130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안양시 안양6동 480, (031)467-1880, 1881
- 국립식물검역소 : 안양시 안양6동 433-1, (031)449-0521
- 국립종자관리소 : 안양시 안양6동 433, (031)467-0111

해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일본수출이 지속되고 밝혔다.

16일 농림부 가축방역과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수거한 불량만두를 제주도에서 돼지에게 급여하는 사진이 신문에 보도된 것과 관련, 해명을 요구하며 적절한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 위생조건을 위반한 제주도산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전해왔었다. 사태는 불량만두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주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결과 불량 무말랭이로 제조, 유통·판매한 만두 3개 제품 1,695kg을 압류,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려던 것을 사료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근 양돈농가와의 의사타진 후 불량만두를 공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가축방역과장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장 등 관계관을 제주도에 급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일본측에 방역상 문제가 없음을 적극 설명해 일본측으로부터 이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 돼지고기 수출, 필리핀·러시아로 지속적인 증가

농림부가 발표한 '2004년 1월~5월 농산물 수출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농산물 수출액은 7억9천700만불로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 760만불에서 890만불로 16.7% 증가했는데, 러시아로의 수출이 4.6%, 필리핀으로의 수출이 1.9% 증가해, 이 지역으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돼지고기 수입량 지난해 총 수입물량에 육박

### - 6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 5만5천207톤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량이 벌써 지난해 총 수입량에 육박하는 등 돼지고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림부의 축산물 수입검역 통계에 따르면 6월 말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 돼지 열사병 등을 예방합시다

### - 하절기 가축질병방역요령 숙지

농림부는 최근 축산농가들이 여름철 가축 질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절기 가축질병방역요령'에 대한 홍보 리후렛을 제작해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배부했다. 농림부는 이번 리후렛을 통해 열사병, 모기매개전염병인 돼지일본뇌염 등에 대한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 중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필요시 가축의 몸에 찬물을 뿌려줘야 하며 축사 내부가 통풍이 잘 되도록 환풍기를 설치하고 가동시켜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축사의 벽이나 지붕에 단열재를 설치해야 하

며, 열사병이 발생한 후에는 시원한 곳에서 가축을 안정시키고 충분한 수액과 영양제를 투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돼지일본뇌염 등 모기매개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축사에 방충망을 설치 및 소독을 해야 한다. 또한 축사주위에 있는 물웅덩이를 제거하고 살충제를 살포해 모기를 방제해야 하고, 의심축 발견시에는 개업수의사에 진료를 요청하거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수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환축에 영양제 및 수액과 소금 등을 공급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5만5천20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천820톤에 비해 63.2%인 2만1천387톤이 늘었다. 이 물량은 지난해 돼지고기 총 수입량 6만790톤의 90.8%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돼지고기 수입량은 올해 말까지 10만톤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86.1로 7.1 포인트나 하락했고, 생활형편 지수도 96.7로 올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 평가지수도 67.3으로 지난 5월 70.7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 6월 소비심리 연중 최저 수준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6월 소비자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92.2로 지난 달 94.8에 비해 2.6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이후에 2개월 연속으로 하락한 수치이며, 지난 해 10월 이후에도 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는 지난달 93.2와 비교했을 때,

### 한국농업자조금연구회, '품목별 자조금사업 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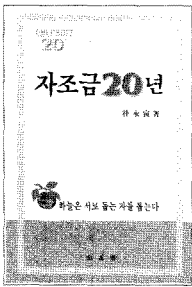
한국농업자조금연구회(회장 박종수)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동 소재 농협 하나로클럽 대강당에서 '품목별 자조금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자조금사업이 진

행중인 축산과 원예의 각 품목별로 축산 분야에는 양돈·낙농·한우·계육·양육 분야, 원예 분야에는 감귤·과수·생약·참다래·채소·화훼 분야로 진행되어 각 품목별로 현재 진행중인 자조금사업의 추진현황과 자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례를 비교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자세한 내용은 본문 105페이지 참조)

### 「자조금 20년」 책자 발간



지난 7월 우리나라의 자조금 사업과 관련해 자조금 제도의 추진과정 등 이와 관련한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자 「자조금 20년」(발행처 흥익재, 가격 1만원)이 나왔다.

한국농업자조금연구회의 창립회장을 역임한 박영인 박사가 집필한 「자조금 20년」 책자에는 △자조금의 목적과 성격 △자조금제도의 도입 정착 과제 △품목별 자조금사업 추진상황 등의 내용과 지난 2000년 6월 양돈·양계·낙농·한우협회 등 축산 4단체장 명의의 의원 입법을 청원한 자조금법 초안 등 국내 자조금 관련 법률과 미국돈육자조금법 등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을 집필한 박영인 박사는 “모쪼록 자조금에 관해 더욱 발전된 연구와 자료 축적이 앞으로 지속되길 바라고 그런 과정에 이 책의 각 제목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아울러 자조금사업을 준비하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을 직접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을 밝혔다.

### 서호주 농업부, 양돈산업 현황 및 양돈투자 설명회 개최

#### -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



서호주 농업부는 지난 7월 9일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 양돈업계의

투자 유치를 위한 '서호주 양돈산업 현황 및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호주 지역으로 국내 양돈업계의 투자를 요청했다. 아울러 투자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서호주 농업부는 이날, 서호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양돈업 등 농산물 수출업을 지지하고 있으며, 양돈산업에 대한 역외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호주 농업부는 설명회를 통해 비육돈 생체kg당 생산비용은 1,200원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은 싱가포르이며 2002/2003년 수출총액은 총 2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료곡물이 풍부해 배합사료 가격이 톤당 평균 24만원으로 국내에 비해 저렴하고 약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담이 적고, 온화한 기후조건으로 난방공급은 겨울에 자돈한테만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이들이 국내 양돈업계를 찾은 것은 서호주보다 우리나라의 양돈기술이 앞서 있다는 점과 자국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수출이 전제되어야 하고, 질병 청정국이라고 하지만 질



병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투자전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양국 정부차원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04 국제양돈 심포지엄 개최 예정

서울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와 충남테크노벨리 등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양돈양축농가 및 육가공업체와 사료산업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4 국제양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3일간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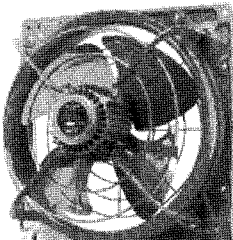
육종에서의 생명공학, 차세대를 위한 교육시스템, 고기 및 육제품의 안전성과 품질과 관련된 형질(농장에서 식탁까지), 양돈 번식에서의 최신동향,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생산이력제를 위한 전략, 브랜드 축산물의 발전과 보호대책, 자돈에서 PED와 TGE의 관리, 무더운 환경에서의 양돈장 환경 관리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심포지엄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8월말까지 사전 등록시에는 15만원을 내면 되나 당일 등록시에는 20만원을 내야 한다.

■ 문의 : 전화 02)880-4801, 02)878-5838 **양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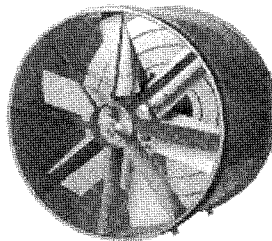
## 쾌적한 돈사 환경은 환풍기 전문 생산업체에 문의

ISO 9001 인증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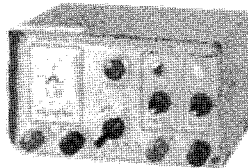
고압 배기팬

- 용도 : 양돈, 양계장, 내부의 암모니아 가스 및 분진, 악취 배출에 적합하게 설계됨
- 특징 : 아연도 강판과 E.G.I 철판 위에 특수도장으로 부식이 되지 않도록 제작된 축사배기 전용 환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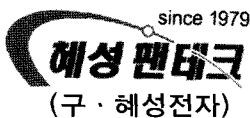
축사입기(A-550/600/700)

- 용도
  -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축사내부로 송풍하는데 최적
  - DUCT를 연결하여 사용
  - 양돈, 양계장에 적합
  - 화훼, 원예, 비닐하우스
  - 기타



타이머(HT-45(TIMER))

- 용도
  - 저렴한 실내환기에 알맞게 시간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정지와 작동하게 하는 환풍기 전용타이머임.
  - 양돈, 양계장, 환기시스템 등에 사용
  - 기타 일반용도에도 사용가능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도사리 662번지  
TEL : 031-981-8312(대표) FAX : 031-981-6128

[www.HSfantech.com](http://www.HSfantech.com)